

## 2017 교토선언(안)

### 1. 머리말

- 1.1 2017년 8월 26일, 제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都鍾煥), 일본국 문부과학대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중국 문화부 부장 류수강(雒樹剛)이 참석하였다.
- 1.2 우리는 「칭다오 실행 계획(2015년~2017년)」 및 「2016 제주선언」에 근거한 사업을 통하여 3개국의 문화 교류·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살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함께 인식하였다.
- 1.3 우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문화 교류를 진전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삼국 관계를 구축 강화할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였다.

### 2.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충실화

- 2.1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도시 간의 문화 교류와 각 도시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3개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 2.2 우리는 일본의 가나자와시, 중국의 하얼빈시, 한국의 부산시를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였다.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3개 도시 간은 물론

이고 이전에 선정된 동아시아 문화도시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기를 기대한다.

2.3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실시할 때 동아시아 문화도시 간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실질적 선정 시기를 전년도보다 더 앞당기는 것에 합의하였다.

2.4 우리는 지난 2016년 「제주선언」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금까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자료(아카이브) 구축, 상징(로고) 마련, ASEAN문화도시와 유럽문화수도와의 연계방안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2.5 우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정상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평가하여 문화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3. 삼국 간 예술가·청소년 교류 촉진**

3.1 우리는 한중일 예술제, 동아시아 문화 교류사절단, 한중일 문화예술 교육 포럼과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3개국의 문화 교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3개국의 예술가가 각각의 문화를 홍보하고 교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3.2 우리는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등과 같은 사업을 3개국의 예술대

학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예술대학 간의 교류를 비롯한 젊은 세대 예술가의 교류를 장려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 **4. 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화 교류 확대와 한중일 공동 문화 프로그램 실시**

4.1 우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3개국에서 연속 개최되어 전 세계의 시선이 3국에 집중되는 기회를 계기로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4.2 우리는 내년에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한 공동 문화프로그램으로서 한중일 호랑이 미술전과 서예 전시회, 연극 공연, 전통극 공연, 장애인 예술가 축제 등을 협력하여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3 우리는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위한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함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5. 문화 시설 간 교류 촉진**

5.1 우리는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3개국의 국립박물관 공동 기획전이 충실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사업을 향후에도 계속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5.2 우리는 미술관·박물관, 극장, 문화 공간 등의 문화 시설 간 3개국 교류 사업을 촉진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각국에서 사업을 착수하여 차기 회의

에서 채택될 실행 계획에 담기로 합의하였다.

## **6. 문화유산의 보호·계승의 추진**

6.1 우리는 무분별한 경제 개발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보호·계승해 온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이 국가 간 대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전 세계 국가 간의 문화유산 보호·계승을 위한 대처에 적극 공헌하기로 하였다.

6.2 우리는 무형 문화유산이 사람들의 생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들 간에 교류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계승에 공헌하도록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화유산 카테고리 2센터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 **7. 문화 산업 분야 및 저작권 보호 협력**

7.1 우리는 문화의 발전이 경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 산업의 발전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창출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7.2 우리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품 콘텐츠의 유통 증진과 불법 복제 저작물에 대한 대응을 위한 3국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8. 2018년 장관 회의를 위하여 2015년에 채택된 「칭다오 실행 계획(2015년~2017

년)」이 2017년 말에 만료되므로 우리는 차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3년간의  
실행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하였다.

9. 끝으로, 우리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가하는 것  
을 환영하고 3국의 문화협력 촉진을 위해 TCS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  
년 「제10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회의의 일정과 의  
제 등 추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사전 회의는 개최국에서 주최하기로  
한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본국 문부과학대신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부장

---

---

---